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3차 실연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5년 4월 10일(금) ~ 4월 12일(일)
- 회의장소 :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미영, 김서령, 김설진, 김승일, 문영, 오선명

본 사업은 창작산실을 통해 개발된 작품들이 실제 공연 단계에서 완성도 있게 구현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품의 완성도를 넘어 공연예술로서의 실연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 가능성까지 고려함으로써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무가를 비롯한 참여 인력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대와 객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실연심의는 20분간의 실연과 15분간의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서류와 실연,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무와 구성, 무대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실연 단계에서의 완성도, 그리고 본 공연으로의 구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재공연 가능성, 유통 및 타 장르와의 협업 등 향후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관객과의 접점, 동시대적 메시지와 공감대 형성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로 논의되었습니다.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협업 체계의 안정성, 운영 계획의 구체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행력 등을 바탕으로 개별 평가와 심층 토론을 거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실연심의에서는 신체의 고유성, 개인의 존재에 대한 질문,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장기간의 리서치를 통해 단체의 역량을 축적해 온 과정 중심의 작품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기존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 프로젝트, 그리고 무용예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제한된 관객층을 넘어 다양한 관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민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흐름과 공연예술계의 환경을 반영하여, 실연 단계에서의 실질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간소한 형식의 실연을 통해 작품의 밀도와 관객에 대한 설득력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외 유통 가능성, 기술 및 장르 융합, 발전 전략의 구체성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이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본 사업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와 실연 인력의 경력 발전과 무용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단체를 지원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논의한 결과입니다.

지원금은 더 많은 단체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자부담 비율이 높거나 실제 필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 항목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재가 확인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례비 및 무대 구현 비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무대 구현 가능성을 갖춘 단체, 안무가의 고유한 작품 세계와 명확한 창작 의도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무대를 제시한 작품, 향후 공연 계획과 네트워크,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한 단체, 그리고 예술적 깊이와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작품들입니다.

예산 역시 작품의 규모와 특성, 실연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반영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이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한국 무용예술의 잠재력을 더욱 넓혀가기를 기대합니다. 단발성 기획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 이어져, 동시대에 의미 있는 위로와 사유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연 단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운영 전략과 관객 개발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유통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단체와 예술가들이 본 지원을 기반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다양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관객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들 역시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만큼,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심의위원 일동